

현대차그룹, 볼더·셀토스·G90 등 美 전략모델 대거 공개

뉴욕 국제 오토쇼

현대차, 중형 픽업트럭 시장 공략
기아, SUV·EV·PBV 라인업 강화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 차별화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가 미국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지 전략 모델을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중형 픽업트럭을 세계 최초 공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으며 기아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델을, 제네시스는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현지 수요가 높은 SUV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현지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볼더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볼더는 '극



현대차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모델을 선보였다. (좌)현대차 '볼더' 콘셉트. (우)기아 셀토스 EX. /현대차그룹

한의 모험을 추구할 자유'를 디자인 요소로 구현한 콘셉트카다. 모델명은 아웃도어의 성지로 알려진 콜로라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왔다. 현대차 미국 디자인센터 주도로 탄생한 볼더는 일반 고객뿐 아니라 오프로드 마니아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볼더는 현대차가 미국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은 미국 문화의 근간이며, 현대차는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견인할 핵심 모델로 신형 셀토스와 소형 전기차 EV3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21대 차량을 전시한 기아는 SUV·전기차·목적기반차량(PBV)을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북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모델을 선보였다. (좌)현대차 '볼더' 콘셉트. (우)기아 셀토스 EX. /현대차그룹

신형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 기아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PBV 모델 'PV5 WAV' 콘셉트를 공개하며 상용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고성능과 맞춤형 디자인을 강조했다. 이번 오토쇼에서 'GV70 그레이트 파이트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G90 왕백 콘셉트와 하이퍼카 모델

등을 함께 전시했다. 또 제네시스는 부스에 '마그마 존' 및 '마그마 레이싱 존'을 마련해 고성능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의 비전을 선보였다. 마그마 프로그램의 첫 양산 모델인 'GV60 마그마'를 전시하고,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배치해 관람객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허태수 회장 "AI 스타트업과 신사업 개척"

(GS그룹)

허 회장, AI 스타트업 기술 협력 논의
단순 투자 넘어 핵심 사업현장 접촉

GS그룹이 투자한 국내외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과 그룹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스타트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로봇공학 기술을 정유·발전·건설·물류 등 핵심 사업 현장에 접목해 신사업 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GS그룹은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허태수 회장과 사장단, 계열사 실무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이 투자한 AI 기술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와 '디지털전환(DX)'이다. GS는 그룹의 벤처 투자 거점인 GS벤처스와 GS벤처스를 통해 발굴한 AI 기술 스타트업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그룹 사장단 및 현장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S그룹

을 한자리에 모아 미래 사업 경쟁력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총 17개 국내외 포트폴리오사 대표와 지사장이 참석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AMESA, Graphon AI, Articul8 등 GS벤처스가 투자한 11개사와 트릴리

온랩스, 에스디티(SDT), 에이디로보틱스 등 GS벤처스가 투자한 6개사가 AI 인프라와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이날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직접 소개하며 벤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허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기존 비즈니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 속에 신사업 기회도 존재한다"며 "GS그룹은 스타트업 투자와 협업을 통해 함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GS그룹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룹 전반의 DX 프로젝트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유망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고도화함으로써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車업계, '충전 할인·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중동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 타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를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시장 소비 흐름이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충전 요금 인하'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초고속 충전망 '이-피트'(E-pit) 요금을 1당 199원에 제공하는 '웰컴 199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kWh 당 199원의 요금은 환경부의 공식 급속 충전 요금(100kW 이상 기준)인 1kWh 당 347.2원과 비교해 40% 이상 저렴하다.

한국GM은 쉐보레 구매 고객에게 유류비와 저금리 할부를 지원한다. 소형 SUV인 '2026년형 트렉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할부 기준 연 3.5%

이율 혜택과 함께 5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60개월 할부는 연 4.0% 이율에 3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하고, 2025년형 트렉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는 생산 시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6년형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는 36개월 할부 기준 연 4.0% 이율에 5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제공한다. 픽업트럭 '시에라' 구매 시에는 500만원의 현금 할인과 함께 36개월 기준 연 4.5%, 60개월 기준 연 5.0% 이율로 구매하는 혜택을 주고, 생산 시점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주력 모델인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 유류비 5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총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해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할부 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는 '마이 웨이' 할부를 새롭게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태광산업, 정인철·이부의 공동대표 체제... 사업 다각화 방침

소비재·헬스케어 B2C 영역 확장

태광산업이 정인철, 이부의 공동대표 이사 체제 전환 이후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다각화 전략을 공유했다.

정인철, 이부의 태광산업 공동대표이사는 2일 주주서한을 통해 "현재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성장 전략 추진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가 이를 각각 전담해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보다 직접

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IR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광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최근 애경산업 인수를 마무리하며 K-뷰티를 중심으로 한 B2C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해 동성 제약 인수도 진행 중이다.

태광산업은 "케이조선 인수를 위해 투자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활용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現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을 인수했으며 신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연계한 사업 기회도 함께 검토 중이다.

태광산업은 "신사업은 개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장치산업 기반 B2B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소비재 및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B2C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 기반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글로벌 점유율 1위

금액 기준 18.9%... 7년 연속 선두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가 2019년부터 7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2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Hz 이상) 시장에서 금액 기준 18.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Hz ↑) 출하량은 310만대로 2024년 대비 약 15%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한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초고해상도를 구현한 6K '오디세이 G

8' ▲뛰어난 색재현력과 240Hz 주사율 4K QD-OLED '오디세이 OLED G8' ▲업계 최고 수준의 주사율을 기록한 500Hz OLED '오디세이 G6' 등 세계 최고 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들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올해도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를 대거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게이머들과 파트너십을 늘려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과 생태계 조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